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

Needs for Shared Community Spaces and Housing-Related Attitudes

김 미 희*

Kim, Mi-Hee

문 희 정**

Moon, Hee-Jeong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atterns of housing-related attitudes and the kind of needs for shared community spaces among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dweller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majority of the dwellers are in strong need of common spaces, especially for children's activities, social gathering and physical exercises. Housing-related attitudes are found and grouped into 4 categories: the propensity to making up common society, the propensity to pursuing the quality of neighborhood, the propensity to orienting natural environment, and the propensity to participating in community. The intensity of the needs depends on family lifecycle, employment status of housewives, and the size of floor space. The propensity to making up common society and pursuing the quality of neighborhood have stronger impact on needs of shared community space. This study reveals that the sense of community orientation i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variable for shared community space needs.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공동주택이란 원래 각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함으로써 인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의 기반을

풍요롭게 하는 공동의식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주거형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각 단위주거가 외부공간과 폐쇄된 영역을 형성하여 자기 완결적인 내부체계 유지에만 치중해왔고 집합된 주거동 및 단지는 단순히 많은 주거단위를 한 곳에 모아놓은 총체로만 취급되어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함께사는 삶을 고려한 주거가

* 정희원,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정희원,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의 사회는 삶의 사회화와 공동체 사회를 지향해 나갈 것이므로 공동주택에서 공유라는 개념 즉, 주거단위는 각각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거외부공간의 여러 공동 복리시설에서 함께 접촉하고 그것을 함께 소유하는 개념은 더욱 중요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의 미래지향적인 주거계획을 위해서는 주거내·외가 유기적인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어야 하고, 주거외부공간에 변화하는 주거생활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민공유공간(shared space)이 정착되어야 하며, 미래 공동주택을 위해서는 단위주택 특성뿐만 아니라 주민공유공간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이연숙, 1989:1991). 실제 이 개념을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수납, 공동독서실, 모임의 방 등의 형태로 원래는 건설업체가 제공해주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주민의 자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 사용되어 지고 있다(고영희, 1995). 이러한 현상은 공동체 사회의 지향에 순응하는 것이기도 하며, 주민공유공간이 미래 주거계획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주민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공간의 종류는 거주자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거주자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기본적 속성과 거주경험, 주거지향이라는 거주자 속성에 따라 나름의 생활상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주요구를 가지게 된다. 실제 거주자의 주요구에 따른 생활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거주가구의 생활상 파악을 위해서는 거주자의 표면에 나타난 현재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잠재된 의식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服部 등, 1977).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거주자의 거주의식에 따른 생활상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주의식은 가족의 주생활을 유도하는 지향성으로 거주의식을 구체화하는 효과적인 연구도구가 된다. 그러나 주의식은 거주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되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계획을 위한 거주자의 생활상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활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주의식의 파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의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주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거주자 특성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생활유형을 주의식 유형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생활형에 대응하는 주민전용 공동공간의 요구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소형아파트 개발시 주민들의 생활행태적 요구에 대응하는 주거외부단지 계획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주의식의 구조 및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3) 거주자 특성에 따른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 4)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면적 25평이하의 소형아파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의 표집에 있어서는 북구, 남구, 서구, 광산구 지역등을 분류하여 행정구역별 표집을 하였고 설문지는 총 360부를 배포하여 30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응답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24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 조사문항, 주의식

에 관한 문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전용 공동공간의 종류와 각 공간에 대한 개념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23가지 공간을 선정하고 이 선정된 공간들을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들끼리 묶어서 크게 5가지 주민전용 공동공간 즉, 수납공간, 기초생활공유공간, 자녀활동공간, 녹지공간, 사회·체육시설로 분류하였다.¹⁾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AS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요인분석, GLM(General Linear Model)과 Duncan-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주부의 연령, 남편의 학력, 주부의 취업여부, 가족생활주기, 평면규모, 주택소유형태 등을 살펴보았다.

주부의 연령을 보면, 30세미만이 22.6%, 30-39세가 56.0%, 40세이상인 21.4%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54.1%, 고등학교졸업이하가 45.9% 형태로 고졸과 대졸의 학력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비취업주부가 60.1%, 취업주부가 39.9%로 나타났다. 가족생활 주기는 만자녀의 학력과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자녀출산 및 양육초등교육기, 중등교육기, 자녀성년기 등 모두 4단계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자녀출산 및 양육기가 39.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초등교육기가 26.9%, 중등교육기가 2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성년기가 10.1%로 표집되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주택특성을 살펴보면 평면규모에 있어서는 11-20평미만이 24.5%이고 20-25평미만이 75.5%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임차자가 각각 50%씩 분포되어 있었다.

2.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의 일반적 인 경향

조사대상자들의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는 대체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표 1>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의 일반적 경향

N=248	
주민전용공동공간	%
수납공간	82
기초생활 공유공간	78
자녀 활동공간	86
녹지공간	80
사회체육시설	86

먼저, 각 영역별 하위 공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잔디에 산책로 및 조경코스, 지하주차시설, 공동놀이방, 공동독서실, 환경친화적인 공원, 실내·외 체육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²⁾

각 영역별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사회·체육시설과 자녀활동공간이 86%로 가장 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수납공간이 82%, 녹지공간이 80%, 기초생활 공유공간이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이 주민전용 공동공간을 대체적으로 원하고 있었던 결과는 단지내에 주민전용 공동공간이 계획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체육시설과 자녀활동공간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주민전용 공동공간계획시 사회체육시설과 자녀활동공간이 다른 공간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3. 주의식의 구조 및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들의 주의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연숙(1989)의 주생활양식에 관한 문항을 참고로 하여 총44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주의식에 관한 44개 문항이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베리맥스 회

전방법(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축소되었다. 44문항 중 27문항을 제외한 17문항에서 .40이상의 요인부하값을 얻었다.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요인 부하값이 .40이상인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요인1은 이웃과의 교류나 주변에 이웃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공동체형성 지향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2는 주변환경의 소음방지, 공기, 햇빛 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질을 중요시하는 성향으로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3은 주택의 정원이나 전원생활을 중요시하는 성향으로 “자연환경 지향성”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4는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행사에 관심을 두는 성향으로 “지역사회 참여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주의식의 구조 중

공동체 형성 지향성은 생활양식의 변화로 나타난 개인주의 생활양식에 대항하는 동네와 이웃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는 생활양식도 출현될 것이라고 예측한 미래주거공간의 전개방향(박인석,1995)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가지 요인들의 주의식의 경향이 높게 나타난 순서대로 살펴보면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이 86%, 자연환경 지향성이 82%이며 공동체 형성 지향성과 지역사회 참여성이 76%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서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은 주택에 있어서 소음이나 채광, 공기상태, 실내환기등 근린환경의 질과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중앙일보,1995)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표2> 주의식의 요인행렬표

문항구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동 분산비
가능하면 집에서 업무나 직장 일을 볼수 있도록 공간이나 시설등이 배려 되었으면 한다.	.44	-.12	.01	.00	.27
이웃과 왕래하며 잘 지낼수 있도록 되어있는 주거환경이 개발된다면 그곳으로 이사갈 위향이 있다.	.45	.02	-.04	.18	.22
앞으로 형편이 되면 시간과 신경이 쓰이는 시설들을 전문관리인이 관리해주는 그런 주택에서 살려고 한다.	.53	.15	.09	-.05	.27
만약 지역 주민들만의 전용복지시설이 안전하게 개발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갈 위향이 있다.	.59	-.02	.11	.05	.32
지역주민들만 전용하는 복지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60	.00	.01	.14	.31
주택을 구매할 때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를 우선적으로 볼 곳이다.	.11	.45	.00	.20	.25
주변이 절대로 소음이 없이 조용해야 한다.	.02	.53	.17	-.00	.31
앞으로 이사를 간다면 무엇보다 주변소음이 없는 조용한 집으로 갈 것이다.	.02	.62	-.01	.01	.41
앞으로 집을 구매할 때는 공기상태 및 실내환기는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볼 것이다.	.19	.50	.21	-.11	.32
현대사회에서 주변환경이 나쁘면 생활수준이 향상되더라도 행복하게 살수는 없을 것이다.	.14	.51	.24	.24	.34
답답한 도시보다는 자연환경이 잘 보호된 곳에서 사는 것이 좋다.	.20	.24	.57	-.08	.40
주택에는 반드시 정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09	.16	.45	.11	.23
앞으로 아파트가 편리하더라도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겠다.	.20	.07	.47	.13	.28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고 싶다.	.15	-.00	.58	-.05	.40
앞으로 내가사는 지역의 봉사단체에 가입하고 싶다.	.10	.06	.17	.51	.35
내가 사는 동네가 더 살기 좋게 된다면 가능한 적극 참여하겠다.	.07	-.04	.05	.58	.38
내가 사는 지역의 여러가지 일에 관심이 많다.	.24	.12	.05	.44	.26
고유값	3.11	1.38	1.32	1.00	
분산의 백분율	36.5	16.2	15.5	11.8	
누적 백분율	36.5	52.7	68.3	80.1	

〈표 3〉 거주자 특성에 따른 각영역별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

		수납공간			기초생활공유공간			자녀활동공간			녹지공간			사회·체육시설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주부의 연령	20대	4.3			4.0			4.3			4.0			4.4		
	30대	4.1	1.32		3.9	0.25		4.2	0.27		4.0	0.43		4.2	0.83	
	40대	3.7			3.7			4.1			3.8			4.1		
남편 학력	고졸이하	4.0			4.0			4.2			3.9			4.2		
	대졸이상	4.2	0.10		4.2	0.97		4.2	0.09		4.0	0.09		4.3	0.00	
가족생활 주기	초등교육기이하	4.2		A	4.2			4.3			4.0			4.3		
	중등교육기이상	3.9	5.97**	B	3.9	1.41		4.0	1.24		3.8	0.50		4.1	0.82	
주부의 취업여부	취업	4.1			4.1		A	4.2			4.1			4.3		
	비취업	4.0	0.80		4.0	4.69*	B	4.2	0.01		3.9	2.51		4.2	1.77	
평면규모	11-20평미만	4.2			4.2			4.4		A	3.9			4.4		
	20-25평미만	4.0	1.50		4.0	1.75		4.1	4.82*	B	3.9	0.02		4.2	1.77	
주택소유 형태	소유자	4.0			4.0			4.1			3.9			4.1		
	임차자	4.2	0.15		4.2	0.72		4.3	0.23		3.9	0.23		4.3	1.01	

*P < .05 **P < .01

4. 거주자 특성에 따른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

미래 단지내에 설치되기를 원하는 주민전용 공동공간이 거주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GLM을 이용한 다중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거주자 특성(주부의 연령, 남편의 학력, 가족생활주기, 주부의 취업여부, 주택의 평면규모,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각 영역별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는 〈표3〉과 같다.

수납공간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교육기 이하인 집단이 중등교육기 이상인 집단보다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 공유공간은 취업주부가 비취업 주부보다 기초생활공유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기혼취업여성이 공동창고, 공동빨래건조장, 공동작업장, 공동세탁실과 같은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자녀활동공간은 평면규모가 더 작은 거주자들이 자녀활동공간을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공간과 사회·체육시설에서는 거주자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때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는 초등교육기 이하집단과, 취업주부 그리고 작은평수의 거주자들이 공통적

으로 주민전용 공동공간을 더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의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간이 단위주택 외부에 계획 되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의 평면규모에 있어서는 작은 평수의 거주자들이 큰 평수의 거주자들보다 자녀활동공간을 더 많이 원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민전용 공동공간을 계획할 때 가족생활주기, 주부의 취업여부, 평면규모 등에 대한 사용자 집단의 요구차이를 인식하여 단지개발에 응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5.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에 미치는 주의식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의식이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으며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공동체 형성지향성이 높을수록,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이 높을수록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기초생활 공유공간에 대하여는 공동체 형성지향성이 높을수록, 녹지지향성이 높을수록 기초생활공유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자녀공간에 대하여는 공동체 형성지향성이 높을수록, 근린

환경의 질 추구성이 높을수록, 자연환경 지향성이 높을수록이 자녀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녹지공간에 대하여는 공동체 형성 지향성이 높을수록, 자연환경 지향성이 높을수록 녹지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체육공간에 대하여는 공동체 형성 지향성이 높을수록, 자연환경 지향성이 높을수록, 사회·체육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에 미치는 주의식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동체형성 지향성,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 자연환경 지향성, 지역사회 참여성 등 모든 주의식변인이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전용 공동공간의 각 영역 중 수납공간, 기초생활공유공간, 자녀공간, 사회체육공간의 영역에 대한 요구는 공동체 형성지향성이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는 변수이었으며 녹지공간에 대한 요구는 자연환경 지향성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였다.

따라서 주민전용 공동공간 계획시 각 공간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영향을 나타낸 거주자 특성의 반영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주의식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표 4〉 주의식이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에 미치는 영향력

		N=248	
종속변인	독립변인	B	R ²
수납공간	공동체형성지향성	0.33***	0.16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	0.20**	
	자연환경 지향성	-0.04	
	지역사회참여성	0.06	
기초생활공유공간	공동체형성지향성	0.31***	0.21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	0.10	
	자연환경 지향성	0.13'	
	지역사회참여성	0.11'	
자녀활동공간	공동체형성지향성	0.30***	0.27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	0.21**	
	자연환경 지향성	0.10'	
	지역사회참여성	0.06	
녹지공간	공동체형성지향성	0.26**	0.28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	0.11	
	자연환경 지향성	0.33***	
	지역사회참여성	0.02	
사회·체육시설	공동체형성지향성	0.28**	0.26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	0.11	
	자연환경 지향성	0.19**	
	지역사회참여성	0.02	

' P < .05 ** P < .01 *** P < .001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의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주요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거주자 특성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생활유형을 주의식 유형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생활형에 대응하는 주민전용 공동공간의 요구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상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이 주민전용 공동공간 중 자녀활동공간과 사회·체육시설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보아 소형아파트 단지의 주민전용 공동공간 계획시 이러한 공간들이 다른 공간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앞으로의 주민전용 공동공간의 계획시 각 공간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영향을 나타낸 가족생활주기, 주부의 취업여부, 주택규모와 같은 거주자 특성의 반영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주의식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용자 집단의 차별화된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하는 주민전용 공동공간 파악을 위해 23개 공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차후에는 거주자의 개성이나 기호를 알아내어 주민전용 공동공간 계획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요구를 일반화 할 수 있도록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디자이너와 사용자간의 의사교환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거주자들의 비용부담의사나 사용료지불여부 등의 의견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제적 적용을 위해서 이용의사나 비용부담의사를 조사하여 현실적 선호를 파악하는 보완연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주

- 1) · 수납공간: 공동창고, 세대별 보관창고,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시설
 - 기초생활공유공간: 공동식당, 공동세탁실, 다목적 행사실, 노인복지회관, 정보화랑 및 게시판, 소규모 작업장
 - 자녀활동공간: 공동놀이방, 실내놀이공간, 공동독서실, 종일제 탁아시설
 - 녹지공간: 실내정원, 녹지시설, 피크닉 시설, 환경친화적인 공원
 - 사회·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잔디에 산책로 및 조깅코스, 공동휴게실
- 2) 김미희, 문희정,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의 주민전용 공동공간 요구도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13권, 8호, pp26-27. 1997.

VI. 참고 문헌

1. 고영희, 「중산층 소형아파트의 공간계획을 위한 생활행태적 접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2. 김한수, 김재익, 「아파트 내외부공간 수요 패턴의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p.111-121, 1995.
3. 손세관, 정숙희,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찰한 새로운 아파트 평면형식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13권 1호, P.25 - 29, 1997.
4. 이연숙,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서울:경춘사, 1995.
5. 이연숙, 유수연, 「국민주택 규모 기준 변경에 대응한 거주자의 반응연구」, 대한 건축 학회지, 9권, 11호, p.3-13, 1993.
6. Karen A. Franck, 「New Households New Housing」, van Nostrand Reinhold : New York, 1995.

